| LS증권 Global Market Daily | 미국증시 코멘트 | 2026. 05. 22 |

지정학 헤드라인에 널뛰는 유가·금리, 증시 장후반 반등 마감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이란 협상 상황 주시하며 등락, 장후반 상승 전환

- 미 증시는 DOW +0.55%, S&P500 +0.17%, NASDAQ +0.09% 상승. 유틸리티, 기술주 강세, 에너지, 필수소비재 약세
- 미-이란 협상과 관련한 헤드라인에 따른 증시 변동성. 장초 이란의 농축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를 둔 양국 입장차가 부각되며 약세 보인 반면,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미국의 최신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유가 반락, 증시 반등
- 실적시즌 종료 후 시장의 관심이 매크로 지표, 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동 상황으로 이동하며 관련 헤드라인에 의한 투자심리 변화 뚜렷

미 상무부 양자컴퓨팅 20 억달러 보조금 지급 및 지분 취득 결정

- 상무부는 CHIPS 법을 기반으로 미국내 9 개 양자컴퓨팅 기업에 20 억 달러(한화 3 조원)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.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, 정부가 직접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도 추진. 이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편 명분으로 전략사업 지분 개입을 이어온 흐름과 일맥상통. 양자컴퓨팅 투자 역시 중국과 기술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목적
- 정부 지원금 및 인프라 자산 공인화에 관련기업 강세. 디웨이브퀀텀(+33.3%), 리게티컴퓨팅(+30.6%), 인플렉션(+31.4%), 글로벌파운드리스(+14.9%) 등. 보조금의 절반은 IBM(+12.4%)으로. IBM 이 뉴욕 올버니에 설립하는 양자칩 전문 파운드리 '앤더론'에 투입될 방침

국채금리 변동성 속 소폭 상승, 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

- 4 월 신규주택착공 146.5 만건, MoM -2.8% 감소이나 컨센은 상회. 신규주택허가 144.2 만건, MoM +5.8%, 컨센 상회
- 5 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55.3, 전월·컨센 상회. 반면 서비스업 PMI 50.9, 전월·컨센 하회, 확장국면은 유지. 종합 PMI 는 51.7 로 전월치 유지
- 5 월 소비자신뢰지수는 -19.0 여전히 부정적이나 전월·컨센 대비 개선세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.9 만건으로 전주·컨센 하회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IBM	IBM	+12.4%	미국 상무부가 미국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 약 9개 기업에 $2B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양자컴퓨터 관련주 일제히 상승. IBM은 미 상무부와 각각 $1B 를 출자하여 미국 최초의 순수 양자 파운드리 독립 법인 '앤더런(Anderon)'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주가 큰 폭 상승
MSFT	마이크로소프트	-0.5%	앤트로픽에 자체 AI 칩인 '마이아'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 중. 계약 성사 시 클라우드 경쟁사(아마존, 구글) 대비 자체 칩 공급 역량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AMD	AMD	+0.5%	대만에 $10B 규모의 AI 반도체 투자 발표하며 대만 공략 강화. ASE 테크놀로지, 파워텍 테크놀로지, 산미나, 인벤텍 등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다변화 중. 리사 수 CEO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빠르게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며, 이번 조치의 배경을 증가한 컴퓨팅 수요 때문이라 설명
LLY	일라이 릴리	+2.2%	차세대 비만치료제 '레타트루티드'의 후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. 후기 임상 80주 차에서 최고 용량(12mg) 기준 평균 28.3%의 체중 감량 효과 기록. 기존 GLP-1 치료제인 젭바운드(20.9%)와 파운다요(11.1%)의 체중 감소 성적(72주 기준)을 크게 웃도는 수치
WMT	월마트	-7.3%	실적발표. 1분기 매출은 컨센 상회했으나, 2분기 및 27년 가이던스가 컨센 하회. 더욱이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매 유통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
RKLB	로켓랩	-6.6%	최대 $3B 규모 지분 매각에 따른 지분 가치 희석 우려로 급락.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과 장내 주식 발행(ATM) 프로그램 구축 계획 발표. 또한 헤지용 선도판매 계약 체결 공시.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목적이나, 잠재적 오버행 부담 및 지분 가치 희석 우려 부각